



정영창 작 '안성례'



임택준 작 'Painful Memories'



신도원 작 '자유평화정원'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과 연결돼 있다”

광주리아트센터 '46 / 518'전 30일까지 진행
장영창 임택준 신도원 등 3명 작가 출품 선배
과거의 기억 호출...5·18과 오늘의 현실 교차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금으로 불러와 다시 사유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시에 참여한 정영창 작가가 5·18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을 연결하는 동시대 예술 프로젝트 전시를 앞두고 한 말이다. 단순히 5·18 민주화운동을 재현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대안,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기억으로 남으며,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감각,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전시가 마련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역사와 인간, 기억과 감각

의 문제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예술이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감각과 질문을 드러내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광주리아트센터가 마련해 지난 4월 17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46 / 518'전이 그것이다. 주제인 '46 / 518'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기획된 제목으로, '46'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기억이 우리의 삶과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하는지를 탐색한다.

전시 기획 취지는 기억은 과거의 기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형태를 바꾸

며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억압과 폭력, 저항과 인간 존엄의 문제는 특정 시대에 머무르지 않는 동시에 그것은 오늘의 세계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는 이런 질문들을 동시대 예술의 언어로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정영창 임택준 신도원 등 세 명의 작가는 서로 다른 조형 언어와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존재와 기억 및 현재의 감각에 대한 공통된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이름테만 '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 서로 연결된 시간 속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는 잊혀진 얼굴과 기억을 던진다. 5·18의 기억 속 인물인 김향숙, 안성례의 얼굴을 먹 작업으로 담아내며 잊혀진 기억과 인간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낸다. 작가는 단순한 초상을 넘어 시대를 통과해온 인간의 흔적과 존엄을 깊은 시선으로 응시한다.

이어 회화·설치·퍼포먼스를 넘나들며 몸과 감각, 존재의 상태를 탐구하고 있는 임택준 작가는

'Painful Memories' 연작을 통해 기억의 흔적과 감정의 잔상을 드러내며,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시간을 현재의 감각으로 환기시킨다.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인 흔적과 선, 굵은 표면들은 인간 내면의 감정과 기억의 층위를 드러내며 고통과 치유 사이의 감각을 시각화한다.

마지막으로 붉은 빛과 물, 식물, 인간의 실루엣이 교차하는 공간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신도원 작가는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존엄, 역사적 기억이 충돌하는 감각적 환경을 구현하며, 붉은 공간을 통해 생명과 상처, 폭력과 침묵이 공존하는 기억의 풍경을 드러낸다. 또 미디어 설치와 드로잉,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객이 직접 공간 안으로 들어와 기억과 감각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이들 세 작가의 작업은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한다. '46 / 518'전은 과거를 회고하는 전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인간의 감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전시다. 고통을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그 기억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남아 있으며 오늘의 세계와 이어지고 있는

지를 드러낸다.

임택준 작가는 “예술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돼 보는 감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신도원 작가는 “이번 작업은 5·18의 기억을 감각적 공간으로 풀어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침묵의 구조를 드러내고, 관객이 그 흐름 속에 직접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윤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시간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46 / 518'은 기억을 단순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감각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예술적 시도다. 예술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깊은 감각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전시가 관객들에게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시대 민주주의의 성찰... '예술만장' 전 거행

민예총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주제... 30일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사)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이사장 정찬일·이하 광주민예총)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항쟁 주년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동시대 민주주의의 성찰하는 제7회 예술만장전이 지난 2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을 목표로 한 10년 장기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예술만장전'은 광주의 오월 정신을 동시대 예술로 축적·확산해 온 대표 공공 전시로, 향후 도시 전체로 전시를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담론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확대된 시민 참여와 동시에 심화되는 권력 집중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긴장을 예술만장이라는 집단적 시각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시에 작가들은 만장의 전통적 형식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 민주주의의 균열, 침묵, 발언의 문제를 시각화하며, 오월 정신을 오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풀어낸다.

공공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민주주

의를 단순한 기념을 넘어 현재의 문제로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 일대에 설치돼 시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참여작가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30명이 참여한다. 출품작가는 고정일, 김병택, 김서경, 김성수, 김운성, 류기정, 리우, 레오나르도, 문서현, 박성완, 박성현, 박은태, 박철우, 백영욱, 손기환, 송창, 신정은, 신희섭, 오미경, 오윤중, 오지원, 유준, 이오연, 이하, 이현숙, 전미경, 전혜옥, 조정태, 최준하, 홍덕표씨 등이다.

광주민예총은 '예술만장전'을 광주의 오월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속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향후 전국 및 국제적 확장을 통해 민주주의 담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우리 소리·몸짓 투영...전통의 시간 '가무음곡'

김나영·이현희·김영은 등 3색 무대... 10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전통예술의 깊이와 동시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국악 공연 '우리 소리와 몸짓 가무음곡' (歌舞音曲)이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승무와 태평무 이수자이자 진도북춤 연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김나영 (사)국악중심 연 대표가 총감독을 맡아 전통춤의 본질 위에 현대적 해석을 더한 '살아있는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춤은 결국 사람을 드러내는 예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무용수의 삶과 내면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 서로 다른 예술적 색채를 지닌 세 명의 무용수가 참여하는 '3인 3색' 구성으로 무대를 꾸민다.

김나영 대표를 비롯해 이현희 지부장 (사)한국전통춤협회 광주지부, 김영은 대표 (목포교방)가 출연해 각자의 춤 언어를 통해 조화와 공존의 미학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국가무형유산 전통춤을 중심으로 대산무, 교방허튼춤, 진도북춤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여기에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의 라이브 반주가 더해져 춤과 음악이 긴밀하게 호흡하는 무대를 완성한다. 전통춤의 형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무용수 각자의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표현을 통해 관객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장단 속에서도 각기 다른 결을 지닌 춤이 교차하며 전통과 현재, 개인과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무대에는 이은비, 김원근, 김준영, 정해성, 김정민, 이소리, 신지수, 임재은, 강창호, 김동욱 등 연주자들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총감독을 맡은 김나영 대표를 중심으로 예술감독 김승호, 연출 권지인, 음악감독 김원근, 기획 김선영, 총진행 송해원, 디자인 김영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한다.

공연은 전문예술법인 (사)국악중심 '연'이 주최·주관하며, 전통국악양상블 '놀이판'과 목포교방이 함께한다. (사)한국전통춤협회 광주지부와 빛고을전통춤연구회가 후원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김나영 대표

이현희

김영은